

하느님을 찾아서

신성근 신부

사람은 항상 무한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을 갈망하며 살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도 완전한 것을 원하는 것일까? 과연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완전함을 바라는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곧 절대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1. 하느님에 관한 생각

우리 조상들 역시 절대자를 인지하고 절대자에 대해 예배의 형식을 취해 왔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막연하게나마 하느님을 알게 해주고 있다. 물론 우리 신앙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느님과 그 개념은 다르지만, 역시 절대자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하느님"은 윤리의 기준으로서의 도덕의 주재자, 하늘에 계시는 주재자, 또는 상제(上帝)로서 위대한 권위를 지닌 절대자로 인식할 뿐이다. 하지만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랑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대자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우선은 이 우주 삼라만상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대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경외심이 절로 우러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시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이로써 인간은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을 들어내고, 하느님이 주신 계시에 자의로 찬동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하느님께 자유로이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움직여 하느님께로 돌이키시고, 정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찬동하고 믿는 즐거움을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내적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같은 성령께서 계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심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신앙을 완성 시키신다(계시 현장 5 참조).

이처럼 인간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활, 하느님과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고 거기에 따르는 것, 즉 자유로이 동의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면, 하느님께서 항상 인간에게 타이르시는 소리에 그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완전한 자신의 의지로 그 하느님의 소리에 대답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답합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인격을 더 완전히 발전시키려 하고, 자신의 권리를 더 많이 받

견하여 주장하려고 한다. 인간의 최후 목적인 하느님의 신비를 밝혀주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므로, 교회는 동시에 인간 존재의 의미, 즉 인간에 대한 깊은 소망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고, 지상 양식으로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교회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인간은 끊임없이 성령의 권고를 듣고 있으므로 결코 종교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음을 교회는 알고 있다. 이 사실은 세기를 통한 지난날의 경험뿐 아니라 오늘의 여러 가지 증거로도 입증되는 바이다. 인간은 언제나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자기 생명과 자기 활동과 자기 죽음의 뜻을 알려고 갈망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인간이 되신 당신 아들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완전한 대답을 주셨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히 인간이 되는 것이다"(사목 41).

2. 고통과 죽음의 문제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차지하며, 그분께 가까이 감으로써 보람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하느님을 안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과 불안과 죽음이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역시 인간에게는 그러한 것이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닌다. 인생은 고행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그러면서도 죽는 것보다는 살기를 원하였다. 그것도 잘살기를 원하였다. 그러면 과연 고통이란 무엇이고, 더구나 그 고통을 극복하고 잘 사는 길, 참된 삶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3. 참된 인간의 삶

아우구스티노는 '잘 살지 아니하면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잘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진실로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더구나 고통 속에서만 허덕이는 무가치한 삶만은 더욱 아니다. 삶에 대해 존귀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럼 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돈과 명예, 높은 지위에 올라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 그러나 그러한 것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 하게 하는 더 큰 괴로움의 원인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삶이 잘 사는 길인가? 바로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며, 그것은 영원하고 상통하는 길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고통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의의와 환희를 맛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죽음과 고통에 대한 의문은 어렴풋이나마 윤곽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사목 21 참조).

그러면 과연 영원을 지향하는 그 사람의 본성과 영원히 산다는 그것은 대체 무엇

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답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죽음 앞에서는 맥없어지지만, 하느님의 계시를 들은 교회는 인간이 지상의 불안한 한계를 넘어서 행복한 목적을 위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음을 주장한다. 그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인간이 원죄를 범하지 않았던들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며, 죄로 잃었던 구원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세주의 은덕으로 인간이 다시 회복할 모든 죽음은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가르친다.”(사목 18항 참조).

「가톨릭 교리서」는 답합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 주셨다. 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삶의 의미에 목적을 묻는 인간의 질문에 결정적이고도 풍부한 답을 주신다(68항).